

보성, 청년 주도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스타트’

LOCAL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청년공동체’ 발대… 동아리 등 15개팀 참여 실질적 활동 사례·전략 모색… 전문가 강연도

보성군이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 북재 회의실에서 ‘2025년 보성군 청년공동체 발대식’을 열고 청년 주도의 지역 활동과 정착 기반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발대식에는 전남형 청년마을 공동체 및 청년 동아리 등 15개팀, 40여명이 참석해 청년의 자발적 참여가 지역공동체로 확장되고, 나아가 마을 재생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는 전남형 청년마을 운영 성과 공유, 행정안전부형 청년마을 소개, 청년 공

동체 및 동아리별 활동 발표, 전문가 초청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청년이 중심이 된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 사례와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보성군이 운영 중인 ‘모닥모닥 동아리’ 9개팀과 전남형 청년공동체 3개팀은 각자의 활동 목표와 핵심 사업을 발표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청년 활동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 강연도 이어졌다. 로컬콘텐츠 기획 전문가 이찬슬 ㈜스픽스 대표(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심사위원)는 “청년공



보성군은 최근 보성 북재 회의실에서 전남형 청년마을 공동체 및 청년 동아리 등 15개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보성군 청년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다.

동체는 기존 마을 운영 방식에 청년만의 감각과 에너지를 접목해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주환 전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이사장(여울림아카데미 대표)은 “청년 활동은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 창업

과 수익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과 공유 세션에서는 전남형 청년마을 ‘퀘스트랜드’와 ‘메모리&멜로디마을’이 마을 콘텐츠 개발, 공동체 간 협업, 외부 청년 유입 등 실질적 운영 사례를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이 지역 공동체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행정안전부형 청년마을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보성군 ‘전체차렷’도 주목을 끌었다. ‘전체(ALL)+차(茶)+랩(LAB)’이라는 이름처럼 보성의 유휴 공간과 전통 차 문화를 접목한 ‘보성형 청년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창업을 함께 겨냥한 독창적 사례로 평가됐다.

서형빈 부군수는 “청년 공동체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자 청년 개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보성군만의 고유한 자원과 청년의 역량을 결합해 ‘보성형 청년 성공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b6@

구례, 첫 명인·명장 선정

국악 김영택·공예문화 김주용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 명인·명장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악과 공예문화 분야에서 김영택씨와 김주용씨를 각각 명인과 명장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명인·명장 선정은 구례군이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장인과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전통문화·공예 분야 외부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악 분야 명인으로 선정된 김영택씨는 오랜 기간 지역 농악 발전에 기여하며 후학 양성에도 헌신해 왔다. 공예문화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김주용씨는 부채공예의 전통을 계승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은 다음달 중 선정자에게 명인·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사업장 인증서 부착, 군 홍보매체 게재, 축제·박람회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함평 ‘우렁새시미’ 선정

함평군 브랜드 쌀인 ‘우렁새시미’가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됐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 우렁새시미가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25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렁새시미는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생산·판매하는 브랜드쌀로,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며 균일한 미질, 향긋한 품미, 뛰어난 신선도를 갖춘 제품으로 기존의 함평 나비쌀의 명성을 잇는 차세대 브랜드 쌀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평가에 출품해 수상에 성공,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한곡식품연구원 등 쌀 관련 전문기관이 주관해 실시된다.

이상익 군수는 “첫 출품에도 불구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 홍보까지 지원해 우렁새시미가 전국적 명성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순천,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시행

연향동 피노키오 어린이집… 월 최대 60시간 이용

순천시는 이번달부터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등으로 정규육아 시간 외 긴급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전남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천시 연향동 소재 피노키오 어린이집에서 추진되며, 생후 6개월부터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규 보육시간 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며,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0원(부모부담)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피노키오 어린이집으로 전화(061-744-6123)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경우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노관규 시장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야간 근무나 긴급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양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영광군은 최근 기업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인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영광,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문 열었다

체력단련실 등 2층 규모… 근로자 복지 향상·주민과 소통

영광군은 최근 기업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인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대마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총사업비 53억50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611㎡,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건립됐다.

복합문화센터 1층에는 운영사무실, 대마산업 입주기업체 협의회실, 회의실, 등

아리방 등이 갖춰져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있어 근로자와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복합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쳤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휴관한다. 시설 이용료는 동아리방 및 회의실, 역

량 강화실은 2시간 기준 1만원, 다목적 강당은 2시간 기준 2만원(개인 2시간 2000원), 체력단련실은 1개월 기준 2만원(또는 2시간 기준 2000원)이다.

이용 신청은 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실(061-872-8810)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세일 군수는 “대마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과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여수, 16일부터 ‘동백 무비 나이트’ 운영

여수시는 오는 16일 웅천전수공원에서 신규 야간관광 특화 프로그램 ‘동백 무비 나이트’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백 무비 나이트’는 자연과 감각을 주제로 한 야외 영화 감상 프로그램으로, 무소울 헤드셋을 통해 주변 소음 없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이색 체험형 콘텐츠다.

첫 상영작으로는 하진호 감독의 영화 ‘봄날은 간다(2001)’가 선정됐으며, 여수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밤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감성 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람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가능하며, 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예약 시 1인당 보증금 1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전액 여수시랑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생수, 컵 팝콘, 모기 퇴치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 ‘동백 무비 패키지’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영화 속 명장면을 재현한 포토존도 운영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영광군의
문화·체육·관광
서비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

NAVER 나코스